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4. 10.



가 평 군 의 회

2014 의정활동 역량강화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 ◎ 선진행정 추진 현장 및 시설을 견학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 ◎ 다양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정에 접목 하고자 함.

I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4. 10. 28.(화) ~ 11. 1.(토) 【3박5일】
- 연수국가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바탐)
 - 1) 싱가포르 기관 방문
 - 도시재개발청(Th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복합환경수자원시설(Marina Barrage)
 - 수질관리 방문자 센터(NEWater Visitor Centre)
 - 2) 인도네시아 바탐(관광인프라 현황)
 - 중국사원, 원주민마을 등
- 연수인원 : 총 8명(의원 5명, 공무원 3명)

II 연수 착안사항

- 싱가포르 도시개발 정책
- 물 부족 국가로서의 수자원 개발 및 활용 방안
- 수질관리 정책 및 기술 도입 방안
- 문화·관광의 가평군 접목 방안

III 연수 일정

일자	지역	시간	주요 일정
제1일 10/28(화)	인천 싱가포르	18:40 23:50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도착
제2일 10/29(수)	싱가포르	10:30 13:00 14:30 16:30 18:30	♣ 도시 자연보존시설 견학 - 주요 자연보존 관광인프라 구축사례 탐방 (보타닉가든, 주룽새공원) ♣ 지역특색 문화 다양성 체험 - 차이나타운, 이슬람거리, 리틀인디아 등 ♣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방문(URA) - 싱가포르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장단기 개발계획 청취 ♣ 마리나 배라지(Marina Barrage) 시찰·견학 - 친환경적인 친수(親水)공간 및 시민친화공간 조성 등을 통한 도시디자인 구축사례 시찰 ♣ 도시특성화 관광사업 현장 견학 - 싱가포르플라이어, 머라이언파크 견학
제3일 10/30(목)	바탐	10:00 13:00	○ 인도네시아 바탐 이동(페리선) ♣ 전통문화 보존 관광산업 인프라 시찰 - 중국사원, 원주민마을, 나고야마을
제4일 10/31(금)	싱가포르	10:00 14:00 16:00 23:00	○ 싱가포르 복귀 이동(페리선) ♣ 뉴워터 비지터센터 방문 - 수자원 관리 및 수질관리 기술·정책 성공사례 시찰 ♣ 도시특성화 관광사업 현장 견학 - 센토사섬, 오차드로드, 싱가포르강 ○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출발
제5일 11/1(토)	인천	06:15	○ 인천국제공항 도착

IV 연수자 명단

■ 연수인원 : 총 8명(의원 5명, 공무원 3명)

연번	소속	연수 대상자		비고
		직 위	성 명	
1	가평군의회	의 장	조 중 윤	단장
2		의 원	최 기 호	
3		의 원	김 춘 배	
4		의 원	이 종 훈	
5		의 원	김 금 순	
6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권 경 진	
7		주 무 관	최 혜 숙	
8		주 무 관	박 인 성	

V 연수전 사전조사 및 학습

- ◎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사전학습과 업무분담, 자료의 수집
- ◎ 의원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연수목적 극대화

■ 준비기간 : 2014. 10. 20.(월) ~ 10. 24.(금) 【5일간】

■ 사전학습(자료수집)

- 1) 싱가포르 기관 방문
 - 도시재개발청(Th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마리나 베라지(Marina Barrage)
 - 뉴워터 방문자 센터(NEWater Visitor Centre)
- 2) 인도네시아 바탐
 - 중국사원, 원주민마을 등(관광지 개발 방안)

■ 의원별 해외연수 보고서 작성분야

의원별 보고서 작성분야	직위	성명	비고
○ 도시재개발청(URA) 도시개발정책·사례 등	의원	이종훈	
○ 마리나 베라지(Marina Barrage) 수자원의 다양한 활용사례 등	의원	김금순	
○ 뉴워터 방문자 센터(NEWater Visitor Centre) 중수의 활용방안, 생산공정 등	의원	최기호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바탐)의 관광 인프라·문화 등	의원	김춘배	

■ 연수전 최종 간담회 실시

- 1) 일 시 : 2014. 10. 27. (월) 14:00 -
- 2) 장 소 : 다목적회의실
- 3) 내 용 : 연수 사전준비 및 자료수집관련 정보공유

■ 기대효과

- 연수국가 및 기관 방문지역에 대한 연수 목적 및 사전 학습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해외연수에 대한 목적 달성

VI 연수 국가별 현황

■ 싱가포르 기본현황



- 국명 :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
- 인구 : 약 5,570,000명
- 면적 : 697km² (가평균 843.48km²)
- 수도 : 싱가포르
- 정체·의회형태 : 중앙집권공화제, 다당제, 단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총리
- 주요민족 : 중국계(76.8%), 말레이계(13.9%), 인도계(7.9%), 기타(1.4%)
- 종교 : 불교·도교(44.2%), 기독교(18.3%), 이슬람교(14.7%), 힌두교(5.1%)
- GDP(2014년) : 3,041억500만 달러 / 세계 38위
- 1인당 GDP(2014년) : 55,568 달러 / 세계 10위
- 언어 : 영어(통용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 기후 : 기후는 열대우림형으로 고온다습하며 건기와 우기의 구분 없이 연중 스콜(Squall)형으로 내리며 11월부터 1월 사이는 몬순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고 기온도 비교적 낮음
 - 연평균 최고기온 : 32.0℃ - 연평균 최저기온 : 25.2℃
 - 평균습도(오후 2시) : 70% - 강우량 : 1,749mm
- 시차 : 우리나라 보다 1시간 늦음
- 독립년월일 : 1965. 8. 9.
- 화폐단위 : 싱가포르달러(Singapore dollar/S\$)
- 국가(國歌) : 전진하라 싱가포르여
- 국화 : 양난(Orchid)

■ 싱가포르 역사

싱가포르에 관하여 역사적인 기술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3세기의 중국의 문헌에 있어서, 'Pu-luo-chung' 이라고 한다. 7세기 이후 스리비자야 왕국에 속하며 자바어로 '바다 마을'이라는 뜻의 어촌 '테마섹(Temasek, Tumasek)'이라 불리었다. 복수의 항로가 합류하는 말레이반도의 끝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이 더해져 다양한 나라의 선박이 기항하는 등, 테마섹은 중요한 무역도시로 떠올랐으나, 이후 14세기경에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싱가포르는 조호르 술탄국의 일부였다. 1617년 말레이시아-포르투갈 전쟁 중에 싱가포르를 포르투갈 군대가 불태웠다. 이후 16세기 동안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으며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그저 어민과 가끔씩 해적들이 나타나는 지역이었을 뿐이었다.

1819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경이 이 지역에 상륙하여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때부터 크게 성장하였다. 영국의 인도 정부가 1858년부터 이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1867년부터는 정식으로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1869년까지 싱가포르의 인구는 100,000명에 달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일본 군대가 말레이시아를 침공하여 (싱가포르 전투) 점령하였다. 6일간 영국군은 치열한 방어를 하였으나, 1942년 2월 15일 항복을 한다. 일본은 싱가포르를 쇼난(昭南)으로 개명하고 1945년 9월 12일 일본이 항복한 후 영국군이 탈환할 때까지 지배했다.

1959년에 리관유(Lee Kuan Yew) 수상과 유소프 빈 이삭(Yusof bin Ishak)에 의해 자치주가 되었으며, 1962년에는 말레이시아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이 중국계인 싱가포르와 인구의 대부분이 말레이인인 말레이시아와의 마찰로 2년 후 독립하게 되고, 1965년 8월 9일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국가를 시작하였다. 유소프 빈 이삭이 초대 대통령으로 리관유가 초대 수

상으로 계속 집권하였다.

새로운 국가로서 싱가포르의 당면한 실업과 자급자족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1959년부터 1990년까지 리완유 수상(李光耀)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홍콩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관 주도의 경제 사회정책의 집행은 공산주의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에 고촉통(Goh Chok Tong)이 수상직을 승계하였으며, 2004년에는 리완유 전수상(현재 국가자문)의 큰아들인 리셴룽(Lee Hsien Loong)이 3대 수상으로 집권하였다.

■ 싱가포르 정치

성문헌법을 가진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 행정권이 내각에 있는 내각책임제이다. 대통령직도 있으나 상징적인 존재로서 일부 거부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으로 총리가 내각을 운영한다. 1991년 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에서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투표로 의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1959년부터 현재까지 리완유가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이 집권하고 있다. 야당으로 싱가포르 노동자당, 싱가포르 민주당, 싱가포르 민주연합 등이 있으나 여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정권의 힘(검열, 선거구 조작,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존재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강력한 독재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싱가포르 행정구역 · 사법 · 법률 등

크게 서부, 북부, 북동부, 동부, 중부의 5개 지역으로 나뉘며 쿼터타운, 센트럴에리어 등 66개 도시 계획 구역으로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모든 사법적 권한은 싱가포르 헌법에 의해 대법원과 그의 부속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법원(the Court of Appeal)과 고등 법원(the High Court)으로 구성되며 항소심 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고, 고등 법

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원심과 상소심을 수행한다. 대법원장, 항소심판사, 사법 위원(Judicial Commissioners) 과 고등법원 판사는 총리가 제정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는 판사를 추천하기 전에 대법원 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헌법에 의해 사법권은 대법원에 있으나, 인민행동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비판 또한 있다.

싱가포르의 법은 대영제국과 영인도의 법 그리고 영미법(Common Law)에 기반하고 있으나,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은 다민족·다종교 사회인 싱가포르의 국익을 이유로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표현의 자유)은 제한하고 있으며, 수많은 무거운 벌금 체계가 존재한다.

특히, 현재까지 태형이 존재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며, 앰네스티에서는 싱가포르를 사형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1994 공공기물파손죄를 지은 미국인 소년에 대한 태형 논란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기까지 하였다.

징병제 시행 국가로 2년 동안 복무하며, 이후 40세까지 예비군으로 복무한다.

■ 싱가포르 경제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이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3,041억\$로 38위의 해당하는 경제규모이며, 1인당 GDP는 55,000\$가 넘는 부유한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다. 제조업도 발전한 편인데, 2012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0.7%가 제조업으로부터 나왔다. 주요 생산품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이다.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

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홍콩, 대한민국, 대만과 함께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4마리 용(NIES)로 불리곤 한다.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데, 2006년에는 9천7백만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에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시켰으며, 마리나 사우스와 센토사 섬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음식 축제, 칭게이 축제 등의 관광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GDP가 2.2%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1년 12월에 경제검토위원회(ERC, The Economic Review Committee)를 세우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수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04년에는 8.3%, 2005년에는 6.4%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투명한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60대부터 시작한 주택개발위원회에 의한 ‘플랫(Flat)’이라고 불리던 대규모 정부 공급 아파트 정책이나 경쟁력이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유명하다. 미디어, 사회간접시설, 교통 등 대부분의 지역 경제는 정부 소유의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 Goods and Services Tax)은 1994년 4월 1일부터 3%로 부과되었다. 이를 통해 16억 달러의 정부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GST는 2003년에는 4%로 2004년에는 5%로 인상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7%로 인상되었다. 싱가포르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약 20%다.

■ 싱가포르 교통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국제 교통 허브로, 많은 항공 및 해운 노선이 이곳을 지난다. 차량은 말레이시아와 같이 좌측통행을 한

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땅이 좁아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우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자동차 구입비용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인구는 560만 명 가까이 되지만 자동차는 65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 인도네시아 기본현황



-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 인구 : 약 253,610,000명 / 세계 4위
- 면적 : 1,904,569km²(대한민국 99,720km² - 약 19배)
- 수도 : 자카르타
- 정체·의회형태 : 중앙집권공화제, 다당제, 양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대통령
- 공식 언어 : 인도네시아어
- GDP(2014년) : 8,561억 달러 / 세계 17위
- 종교 : 이슬람교(87%), 개신교(6%), 가톨릭, 힌두교, 불교
- 시차 : 우리나라 보다 2시간 늦음
- 독립년월일 : 1945. 8. 17.
- 화폐단위 : 인도네시아루피아(Indonesian rupiah/Rp)
- 국가(國歌) : 위대한 인도네시아
- 국화 : 보루네오재스민

■ 인도네시아 개관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서쪽의 수마트라 섬에서 동쪽의 뉴기니 섬까지 약 5,100km, 남북으로는 약 1,600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동쪽으로는 파푸아뉴기니와 아라푸라 해, 남쪽과 서쪽으로는 인도양, 북서쪽으로는 안다만 해, 북쪽으로는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셀레베스 해, 태평양 서부 해역과 이웃한다.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 인도네시아 문화

수세기에 걸친 문화적 동화작용의 결과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양식이 생겼다. 8~10세기에는 거대한 대승불교 유적인 보로부두르 및 광대한 힌두 사원 단지들이 자바 섬 중부에 건립되었다. 음악·춤·연극이 결합된 표현양식을 자바 섬과 발리 섬의 유명한 인형극 와양(wayang)에서 볼 수 있으며, 금속세공과 돌·나무·뼈·상아 등의 조각물을 포함하는 장식예술과, 복잡한 도안을 창출하기 위해 방염 왁스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섬유염색법인 납결염색법(바틱)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문학사에는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 모두 존재한다.

■ 인도네시아 역사

13세기에 인도에서 온 이슬람교도 상인들을 통해 이슬람교가 수마트라 북부에 전래되어, 다음 2세기 동안 힌두교와 고유문화를 계속 고수한 발리 섬을 제외한 여러 섬들로 전파되었다. 15세기 후반 이후 마자파히트 왕조가 쇠퇴했으며, 16세기에는 신생 이슬람 무역국들이 여러 섬의 지배권을 놓고 자기들끼리, 또는 내륙의 귀족계급을 상대로 경쟁하게 되었다. 1511년 포르투갈인들이 몰루카 제도(향료제도)에 상륙했고, 뒤이어 스페인인·네덜란드인·영국인이 도착하여 현지 통치자들을 서로 적대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쉽게 지배권을 장악했다. 무역에 전념하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결국 자바, 수마트라, 몰루카 제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획득하고 바타비아(지금의 자카르타)에 회사를 설립했다.

17세기말에는 네덜란드가 거의 모든 섬에 대해 경제적·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했고, 1811~16년을 제외하고는 20세기 중엽까지 계속 이 지역에서 지배권을 행사했다. 1927년에 수카르노를 총재로 한 인도네시아 국민당(Indonesia Nationalist Party/PNI)이 결성되어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을 꾀했으나 1929년 수카르노를 비롯한 지도자급 인사들이 검거되었을 뿐 실패로 끝났다. 1942년에는 일본이 네덜란드 식민통치로부터 이 지역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원주민들의 저항이 약해진 틈을 타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침략했다.

일본의 항복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민족운동 지도자 수카르노와 하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방해로 1949년 12월 27일 헤이그 원탁회의에 따라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이 탄생하였고 네덜란드와의 사이에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합이 성립되었다. 그 뒤 공화국 정부는 단일국가 수립에 노력하였으며 연방내 친(親)네덜란드파(派)의 반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를 배제한 뒤 1950년 8월에는 1949년의 연방헌법을 폐지하고 연방을 해체하였다.

그 결과 서유럽형 의회제도를 골자로 하는 1950년 헌법에 의하여 단일독립국가로 통일되었고, 이어서 1956년 2월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합을 폐기함으로써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1963년에는 수카르노가 군부의 지지하에 종신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독재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대외적으로 UN을 탈퇴하고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용공노선을 지지함으로써 군부와 공산당이 대립,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1965년 반공적인 군부세력의 쿠데타가 발발하였

으며, 1968년 수하르토 정부가 출범하였다. 수하르토 정부는 1969년 이리안바라트를, 1975년 동티모르를 합병하였으며 1992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함으로써 연속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1999년 8월에 UN 감시 아래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이 결정되었다.

VII 주요 방문지 현황

1 도시재개발청(Th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1974년에 설립된 도시재개발청(URA)은 국가 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도시 계획 및 설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설계조직으로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조직이다. 특히 도시재개발청에서는 상·하위 도시계획들을 직접 수립하여 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개발과 도시문화 유산의 보존을 함께 고려하여 가치 있는 도시 공간 정보를 수집,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전시·출판·교육 등을 통해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일반인의 공감대를 유도하고 있다.

■ 싱가포르 시대별 주요계획

1. 잭슨플랜(The Jackson Plan) : 도시 내에 말레이인, 중국인, 인

도인 그리고 유럽인 등 주요 인종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상업과 행정구역을 특징에 따라 구획하였다. 오늘날 캄퐁그람(Kampong Glam), 차이나타운(Chinatown), 리틀인디아(Little India) 등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각각 말레이, 중국, 그리고 인도인들의 성격을 잘 간직하고 있다.

2. 1958년 도시계획 : 점차 싱가포르가 개발되면서 인구증가, 교통 혼잡, 빈약한 위생상태 그리고 과밀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주택과 실업문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으며, 이 문제는 각각 HDB(주택개발위원회, Housing & Development Board, 1960년 설립)와 EDB(경제개발위원회, 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 담당하였다. 특히 제조업 분야와 금융부분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3. 1971년 콘셉트 플랜(최초의 콘셉트 플랜) : 신생국가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시설과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센트럴 수변지역 주변의 고밀도 위성도시의 계획을 가시화 하였다. 위성 도시는 고속도로와 서로 연결되게 계획 되었으며 이 안에서 MRT(Mass Rapid Transit System, 대량고속전철)이 계획되었다.
4. 1991년 콘셉트 플랜 : 경제발전과 양질의 삶에 중점을 두었다. 10년 동안 MRT네트워크는 연장되었고, 아주 폭넓고 다양한 종류의 주택들이 공급되었으며 새로운 지역 중심지와 비즈니스파크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Re-Creation 지역과 더 많은 도시공원과 연결녹지를 조성했다.
5. 2001년 콘셉트 플랜 :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도시, 편리한 주택의 공급, 리크리에이션 시설 선택의 다양성, 상업의 유연성 조장, 국제경제에 발맞춤, 전철노선의 연장과 문화적 정체성 등이 계획되었다.
6. 2003년 마스터 플랜 : 양질의 삶, 상업 환경의 개선,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지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계획은 특히 싱가포르 전역에 걸쳐 공원과 수변의 계획, 정체성 계획에 역점을 두었다.

7. 현재는 20년 안에 인구 250만 명을 더 늘려 780만 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2008년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방문 사진



2 마리나 베라지 - 해양댐(Marina Barrage)

싱가포르는 제일 높은 산 부킷티마가 겨우 해발 163.3 미터이고 전국토는 대부분 정글과 습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쓰고, 식수는 코즈웨이를 따라 대형 파이프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부터 수입하고 있는 물 부족 국가이다. 이에 싱가포르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1998년에 완성한 Marina Barrage(해양댐)이다.

싱가포르 강과 바닷물 사이에 높이 28m의 9개 수문을 구축하고, 그 위는 마리나 이스트(Marina East)와 마리나 사우스(Marina South)를 연결하는 브리지(350m)를 건설하였다. 수문을 개폐하여 수위를 조절하고 만조시에 물을 방류하지 못할 경우 7개의 대형 펌프시설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옥외에는 발전시설인 Solar Park가 있고, 옥상은 축구장 4개 규모의 잔디광장을 깔아서 실내온도 상승을 방지하면서 놀이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태양열 전기 시설을 구축하여 마리나댐 전력의 50%를 생성하고 있다. 또한 환경 관련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빗물 집진 시설을 구축하여 모은 빗물을 건물 옥상 잔디광장에 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빗물은 건물 내 화장실 용수로 쓰고 있고, 화장실에 변기는 모두 최신 물 절약 설비로 구축되어 있다. 물 공급, 홍수조절 및 휴식 공간, 자원재활용으로 1석 4조의 이득을 얻고 있다.

지리적 특성상 물이 부족한 싱가포르가 미래세대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바닷물을 정수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싱가포르의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담수화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여 국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방문 사진



3 뉴워터 비지터 센터(NEWater Visitor Centre)

현재 싱가포르 자체의 담수량은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는 인접국인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다. 수자원의 8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20% 정도를 싱가포르 내 수자원과 폐수처리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조호르 해협에는 약 1Km 길이의 코즈웨이라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이 교량을 통해 두 나라의 사람들과 차량들이 왕래하는데, 물 역시 이 다리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에 공급된다.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 초부터 매일 15억 9천만 리터의 물을 싱가포르에 공급하고 있는데, 애초에 책정된 물 값이 너무 싸서 가격 재조정 협상을 벌인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국가 간의 감정까지 격화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멤브레인(분리막)필터를 이용한 상·하수처리 시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물 전쟁을 치르는 싱가포르 정부가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는 NEWater는 화장실 변기의 물 등 온갖 하수가 섞이는 이 저수지의 물을 정화해 뉴워터로 공급하고 있다.

약 6만5천 번의 과학적 테스트를 거친 뉴워터는 하수를 재활용한 물이지만 바로 마셔도 될 정도의 수질을 자랑한다.

NEWater 물을 마셔보면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이상이 없는데, 2002년부터 선보인 뉴워터는 5군데의 플랜트에서 생산되며 현재 싱가포르 물 공급량의 30%를 담당하고, 상당수가 공업용수로 쓰이지만 음용수로도 공급되고 있다.

현재 음용수로 약 2%의 뉴워터가 섞이고 있으며, 이 비율이 점차 높아질 예정이고, 2060년까지 뉴워터가 전체 물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늘릴 예정이다.

■ 방문 사진



4 도시 자연보존시설

■ 보타닉 가든(Botanic Gardens)

싱가포르의 최고의 식물원 겸 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유

명하다. 보타닉 가든 안에는 국립 난초 공원도 위치하고 있어 3천여 종이 넘는 희귀 난초들을 볼 수 있다.

보타닉 가든은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싱가포르 최대의 식물원으로 도심 속의 큰 정원 같은 느낌을 주는 이곳은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개방하여 싱가포르 현지인들의 소풍이나 산책 장소로 인기가 높다.

수많은 열대식물이 넓고 걷기 좋게 포장된 산책길 옆으로 우거져 있는데 식물원 명칭에 ‘가든(Garden)’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듯이 그 속을 거닐다 보면 ‘정원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싱가포르 국화(반다 미스 조아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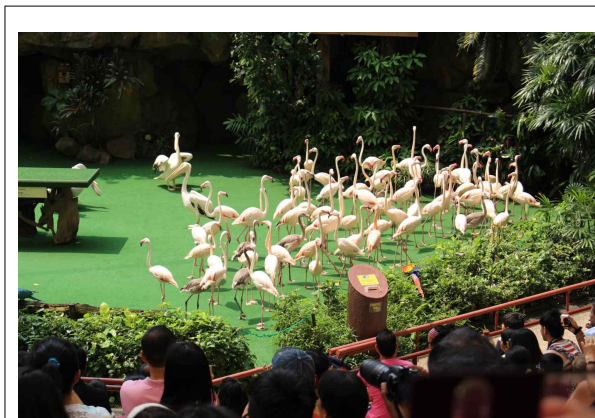


공원 조성 현황 시찰

■ 주룽새공원(Jurong Bird Park)

원래는 공업단지였던 주룽 타운이 자연친화적 테마파크로 바뀌었다. 싱가포르의 3대 동물공원 중 하나인 주룽새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생 조류 공원으로 600여종, 9,000여 마리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매일 오전과 오후에 관광객을 위한 버드쇼가 열리며, 면적은 약 20만㎡이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가 많기로 유명하다. 공원 내부는 친환경적으로 꾸며져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폭포가 조성되어 있다. 공원은 여러 개의 구역(앵무새, 펭귄, 열대

지방의 새, 야행성 새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람객 각자의 취향에 맞게 구경할 수 있다. 직접 새들에게 모이를 줄 수도 있으며, 새들이 묘기를 부리는 각종 쇼도 즐길 수 있다. 새들은 함께 사진을 찍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모양새 없던 공원단지가 유명한 동물공원으로 바뀌어 싱가포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새 공연을 통한 관광객 유치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거대 새장

5 도시특성화 관광사업 현장

■ 센토사섬(Sentosa Island)

싱가포르 시내 중심가로부터 15분 거리에 위치한 센토사는 자연 속 종합레저 휴양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으로 2010년 1월 개장된 싱가포르 최초의 통합형 리조트로 놀이공원, 테마공원, 열대리조트, 자연공원 등이 있는 '리조트 월드 센토사' 등 4곳의 리조트와 골프코스 등 약 200여개의 관광명소를 갖추고 있는 리조트 섬이다.

1967년까지 영국의 군사기지로 쓰였던 이 섬은 1972년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되었다. 자연 상태의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놀이동산이라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머리아언 타워,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

주요 관광명소로는 센토사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700m 길이의 보행자 전용도로 '센토사 보드워크', 싱가포르 남부지역의 경치를 볼 수 있는 '주얼 케이블카 라이드', 실내 스카이다이빙 시뮬레이션 시설인 'iFly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같은 해 4월에 오픈한 '마리나 베이 샌즈'와 함께 싱가포르가 복합적 부가가치 산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MICE산업(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 국제회의와 관광, 전시, 박람회가 결합된 다목적 관광 산업)의 선두에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케이블카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케이블카로 싱가포르 본토와 센토사 섬을 연결하고 있는 '주얼 케이블카 라이드'는 '하버프런트 타워 역'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종점인 '어라이벌 플라자'에 도착하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푸른 바다, 푸른 숲과 함께 도시의 빌딩 숲을 감상할 수 있고, 항만산업이 주산업인 싱가포르의 항만모습은 물론 한창 진행 중인 개발현장 등 다양한 모습들을 조망할 수 있다.

센토사 섬 중심에 위치한 '머라이언상'은 건물의 12층 높이로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맨 꼭대기에 오르면 센토사 섬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관망할 수 있다. 센토사섬에 들어가는 방법은 버스, 자전거, 페리, 지상케이블카 등 관광객 입맛대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 싱가포르 관광정책의 섬세함을 볼 수 있다.

	
센토사 섬	주얼 케이블카 라이드

■ 머라이언 파크(Merlion Park)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상(Merlion Statue)이 있는 공원. 머라이언상은 8.6m 거대한 크기로 공원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데, 뒤로는 풀러턴 호텔이 있고 앞으로는 마리나 베이를 마주하고 있다.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가공의 동물로 'merlion(머라이언)'은 'lion'(사자)에 'mermaid'(인어)를 합성한 단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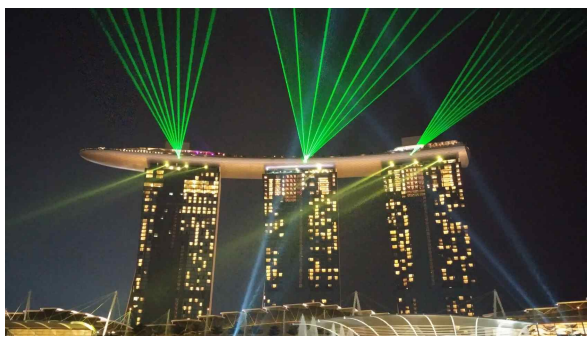
이는 싱가포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이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 머라이언상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다. 머라이언 파크를 감싸고 있는 원 풀러턴 지역에는 수많은 고급 레스토랑들이 자리하고 있다. 밤에는 조명으로 빛나는 머라이언상과 두리안 모양의 에스플러네이드, 싱가포르 플레이어 등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



■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Marina Bay Sands Hotel)

마리나 베이 지역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세 건물. 바로 MBS라고도 불리는 마리나 베이 샌즈 그룹의 호텔 1·2·3 빌딩이다. 지하 3층, 지상 57층 3개 동 2,560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3개 동의 상층부에는 대형 함선 모양의 샌즈 스카이 파크가 있어 투숙객이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2007년 수주해 쌍용건설이 시공 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까다로운 건축물 설계로 유명하며, 세 개의 호텔 타워로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재정립한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 호텔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한다. 샌즈 스카이 파크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맨 꼭대기, 57층으로 싱가포르와 그 주변의 360도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레스토랑 및 바에서 식사를 즐기거나 수영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약 20개가 넘는 레스토랑, 약 500명에서 45,000명 정도를 수용 가능한 엑스포 및 컨벤션 센터, 쇼핑 시설, 나이트클럽, 라운지, 2개의 극장 및 박물관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머라이언 파크에서 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야경

6 전통문화 보존 관광사업 인프라

■ 바탐 불교사원 및 원주민 마을

바탐섬은 싱가포르에서 동남쪽으로 불과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인도네시아령이지만 싱가포르의 자본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곳이다. 중국사원과 원주민마을을 돌아보고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원주민 마을 : 인도네시아 원주민 마을은 야자나무로 가득한 현지마을로 순박한 현지인과 전통가옥, 전통문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 중국사원 : 인도네시아의 중국사원은 도교와 유교, 불교가 한 건물 안에 공존해 있다. 사원 내부에는 공자, 관우, 불상 등이 각지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사원 내부에서는 도교, 유교, 불교, 기복신앙 등 중국계 거주민들이 믿는 모든 신앙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중국사원 내부



원주민마을 전통 공연

VII 연수 결과 및 총평

1 연수 결과

-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5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된 이번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적인 도시개발과 관광개발 정책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발전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적 마인드를 배양함으로써 향후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었다.

- 금번 싱가포르 연수단에서는 앞으로 우리군에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사례를 5건 발굴하였으며,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편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폭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던 소중한 뜻깊은 경험이었다.

2 분야별 비교견학 내용

■ 도시개발정책

- 싱가포르는 현재의 697km²의 좁은 국토의 면적을 주변의 수많은 섬을 매립하여 약 20년 이후인 2030년에는 780만명이 상주하는 도시로 건설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 이같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도시재개발청이 주관하는데 1천여 명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좁은 국토를 짧은 기간 내에 발전시키고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우리군의 경우 가평시 건설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도시개발 정책이 미흡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많은 인구가 상주하여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설계 및 개발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 다문화정책

- 싱가포르의 민족은 중국계 76.8%, 말레이계 13.9%, 인도계 7.9%, 기타 1.4%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 외국인은 80%는 북미, 호주, 유럽, 중국, 인도 등지에서 온 화이트칼라 노동자들과, 20%정도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정착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 또한 종교는 불교·도교 44.2%, 기독교 18.3%, 이슬람교 14.7%, 힌두교 5.1%, 기타 17.7%로 다민족·다종교 국가이나 서로 공존하며 융화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통합지원 시스템 전체적으로 화합을 추구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독특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거주 외국인수가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2014년 10월말 현재 1,080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보수적인 단일 민족체제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다문화 체제로 바뀌면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방행정 지원시책의 개발과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교통정책

- 얼마 전 우리나라의 등록차량이 20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15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4번째이며, 차량 1대당 인구수가 2.56명이라고 한다. 급속한 차량증가 속도에 비해 도로건설과 주차장 확보문제는 무척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량정체와 주차문제는 새로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싱가포르의 좁은 면적에 비해 차량이 많아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한 편이라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VQS시스템인 차량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폐차한 숫자만큼만 신규차 등록을 허가한다. 따라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가 무척 힘들며 가격도 비싸다고 한다.

-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말이나 휴일에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며, 도심에 많은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ERP 시스템을 운영하여 혼잡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차량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볼만한 시책이었다.

■ 교육정책

- 싱가포르는 다민족, 다문화로 이뤄진 복합사회이나 헌법에서 영어를 공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반드시 1개 모국어(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중 택일)를 이수해야만 하는 2중 언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일반적인 학제는 6-4-2-3제이며, 세계화 및 지식기반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실용주의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부터 대학까지 매 과정마다 경쟁을 통하여 극소수 정예만이 대학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대졸 실업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교육열로 인하여 불필요한 고학력 인력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도한 교육비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고학력의 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싱가포르의 실용적인 교육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랜드마크 관련

- 머라이언 파크에 우뚝 서 있는 ‘머라이언상(Merlion Statue)’은 머리는 사자이고 몸체는 물고기 형상의 8.6m의 그리 크지 않는 조형물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이기도 하다. 연간 약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는데 이곳은 인기 있는 관광명소 중 하나이다.

- 머라이언상을 관람하면서 우리군의 랜드마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관광이 주요자원인 우리군도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랜드마크 건설이 아니더라도 싱가포르와 같이 작은 규모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껴본다.

3 연수 성과 및 총평

- 바쁜 일정의 연속으로 국외연수에 따른 사전 자료 수집을 충실히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비교 견학이라는 연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연수를 통하여 싱가포르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됨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 비록 짧은 해외 해외연수 기간이었지만 보고, 듣고, 체험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도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세심한 도시재생 전략을 통하여 단기·중기·장기 과제들을 극복하는 데 다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배웠다.
- 이번 연수를 통하여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가평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군민을 위한 모범적인 의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